아직 이름 없는 숲

미나세 레이 / Rei Minase



틈마다 다른 계절

낯선 대기와 중력 속에서 자라는 우주식물. 막과 틈, 빛의 흔적이 아직 이름 없는 숲을 이룹니다.

미나세 레이의 《아직 이름 없는 숲》은 지구의 식물 분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을 다룹니다. 뿌리와 줄기의 경계가 흐려지고, 접힌 막과 비어 있는 구조가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숲이라는 익숙한 이름 앞에, 낯선 성장의 형태가 먼저 놓입니다.

〈몸이 되기 전의 간격〉에서 시작된 풍경은 물속으로 잠기고, 수평으로 뻗으며, 밤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주름 안에는 더 작은 주름이 이어지고, 표면의 미세한 구멍과 섬유는 서로 다른 성장의 시간을 드러냅니다. 황록색, 호박빛, 청록색과 검붉은 색이 대기의 밀도에 따라 겹쳐집니다.